



# 올 상반기 내 밀가루 가격 인상은 없다

지난해는 안정돼 있던 밀가루 가격이 인상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유는 무엇인가.

밀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가 주 원인이다. 알려진 대로 주요 밀 수출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인데 이들 밀 수출국이 기상 이변으로 예년에 못 미치는 수확량을 기록했다. 또 소련이 기상 악화로 곡물이 크게 모자라 수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생산량은 감소했는데 수요량은 늘어 원맥이 가격이 급등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밀가루 가격으로는 원맥가 상승분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국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

생산량 감소는 수급과 관계가 있다. 밀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는 얼마이며 세계적으로 물량 부족은 어느 정도인가

전 세계적으로 94년 밀 생산량은 5억3,000만톤인데 작년에는 5억2,200만톤으로 800만톤이 줄었고 미국의 경우도 6,300만톤에서 5,990만톤으로 줄었다. 밀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

는 일부인데 밀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의 수요와 밀을 생산하지만 수확량 감소로 수입해야 할 처지에 놓인 나라의 수요가 합쳐져 원맥의 급상승을 가져왔다. 세계적으로 밀 재고량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식량 위기라고 하는데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인 FAO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밀 재고량이 17%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 수급에 문제라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세계적으로 수확량에 비해 수요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 국내에 한정해 본다고 해도 제분 업체들이 필요 원맥을 거의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1달 반 가량의 재고 물량은 항상 비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가 부족한 상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작년년부터 원맥 가격의 급상승으로 제분 업체가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 원맥가 상승은 최종적으로 밀가루 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데 원맥의 상승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작년 원맥가는 예년에 비해 평균 30%가 급상승했다. 1월 말 현재 밀 종류 중 하나인 DNS의 경우 안정세 때보다 38% 상승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작년의 경우 원맥가가 30% 상승해 부득이 원가 부담으로 두차례에 걸쳐 밀가루 가격을 20% 인상했다. 그러나 22kg 강력분 밀가루 시판 가격이 1만5000원 정도인데서 나타나듯 현재 밀가루 가격은 타 곡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기 때문에 밀가루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심한 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지난해 20% 가격이 인상됐지만 중량에 비해 가격이 높은 타 재료와는 달리 큰 원가 부담은 없으리라 본다.

원맥가 인상은 30%인데 실제 밀가루 가격은 20% 인상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10%의 인상 요인이 남아 있다. 인상이 된다면 어느 정도이며 시기는 어느 때가 될 것으로 보는가

밀가루는 생활 필수품이다. 작년 원맥가 30% 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20% 올렸지만 10% 인상 요인이 남았다고 액면 그대로 10% 밀가루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밀가루 가격의 20% 인상의 폭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회사같은 경우 나머지 인상 요인은 자체적으로 흡수할 방침이다. 따라서 또다시 원맥가의 급상승이 없는 한 올해 상반기 내에는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타 업체도 그러리라 본다.

## 대한제분

인사

# 홍세택 이사

지난 한해는 각종 원부재료 가격 인상으로 제과업체가 주름진 한해를 보냈다. 이중 밀가루 가격 인상은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가격 인상이 생산국의 수확량 감소가 주원인이었기에 수급이 불안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이에 본지는 올해 밀가루 가격 변동과 수급현황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대한제분 홍세택이사에게 듣는다.